

**날짜:** 5785 년, 여섯째 달 23 일 (9 월 17 일, 2025)

**토라 문:** 니짜빔

**주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신명기 30 장 12-14 절의 기록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쉐께서 시나이산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인 토라를 내려 들려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토라의 명령이 하늘에 없다"라고 말로 했어야 되었을까요?

솔레모 (솔로몬) 왕은 토라 공부에 게으른 사람에 대해 일곱 가지 유형을 가르치셨습니다. 허나 "모쉐께서 전하신 토라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미드라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미드라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에게 "네 선생님이 옆 마을에 계시니 가서 그에게 토라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잠 26:13). (2) 사람들이 "보라, 네 선생님이 성 안에 계시니 일어나 그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 26:13). (3) 사람들이 "보라, 네 선생님이 네 집 바로 옆에 사시니, 어떤 길도 걸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밖에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ibid., 22:13). (4) 사람들이 "네 스승이 너와 같은 집 안에 있다! 그러면 위험한 길을 가지 않고도 스승에게 갈 수 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면, 나는 돌아와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문이 열려 있다!"(26:14)라고 말해줍니다. 이 예화는 스승의 방 문이 열려 있는데도 게으른 사람은 그 눈을 감고 다시 잠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 결국 그는 만들어 낼 수 있는 변명을 다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든 잠겨 있든, 나는 그저 조금 더 자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합니다, "게으른 자야,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나느냐?"(잠 6:9). (6) 그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사람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지만 그는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없습니다 (잠 26:15). (7) "게으른 자는 가을이 지나고 나서 밭을 갈지 아니하며 추수할 때에 구하되 얻지 못하느니라"(잠 20:4). "게으른 자는 가을이 지나고 나서 밭을 갈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인 토라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점이 되었음에도 공부하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그 때가 지나고 뒤늦게 토라를 공부하려고 하지만 최적의 시간을 놓치고 생명의 말씀을 공부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것이 바로 "추수할 때에 구하되 얻지 못하느니라"(ibid.)라는 구절의 은유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모쉐께서 전하신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전하신 진중한 그의 가르침은 솔로몬 왕의 모든 말보다도 더 강력한 훈계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토라 공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입에서 한 마디만이라도 온심으로 발성을 하면 그 간구가 의의 씨앗이 되어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심은 여호와의 토라를 믿고 청종하는 것인데, 사람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열심이 있으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며 마냥 거리를 헤매고 다니며 찾을려고 하거나, 혹은 그 자신에게는 배움의 문이 막혔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여호와의 기쁨이 됨으로 삼고,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가르침들을 온 심장에 통으로 새김 받아 각인의 가장 깊은 폐부를 지나고, 그 입술로부터 넘쳐 흘러 나오도록 하라는 것이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우니 네 입과 네 심장에 있으니 이를 행하라"는 모세의 강권적이신 가르침입니다.

19 세기 초반의 랍비 마하르주 (Maharzu)에 따르면, 솔레모 왕과 모쉐께서는 배경이 다른 두 유형의 영혼들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잠언의 "게으른 사람"은 여호와의 토라 공부를 전혀 해 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토라 공부를 하도록 부드럽게 권유 받는 사람이 대상인 반면에, 신명기의 대상은 이미 여호와의 토라에 정통하고 끊임없는 복습을 통해 얻은 살아있는 말씀의 지식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된다는 모쉐 그 분 자신과 비슷한 환경과 배경의 사람들에게 전하신 강력한 훈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으로 접한 내용을 즉각 이해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성취감이 금방 주어지지 않은 긴 여정과 같이 느껴 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숙지된 여호와의 토라를 기억하고, 신실하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토라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와 함께 그의 할라카 (걷는 도)를 준행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따라서 모쉐께서 광야 40 년의 최 정점에서 나누셨던 네짜빔 뭍의 말씀은 솔레모의 교훈보다 더 강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그가 맺으신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장성한 이스라엘 네뻬쉬 (영혼)들에게 눈으로 목도하는 인지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토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회독하고 기억하며, 수족으로기빠하며 지키는 최선의 신성한 본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 인과관계의 신성한 원리를 모쉐께서는 숙지하시고 그 말씀이 전달된 모든 영혼들의 "오늘 날"에 있어서 즉시 준행하도록 강권하십니다.

샬롬.

"사람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권능자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미가 6:8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엘로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권능이시니라." - 요 1:1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마태 11:27-30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 히 5:11-14

“또 우리 아도나이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역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 벧후 3:15-17

“여호슈아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 14:6

\*\*무법한 자들: 여호와 토라, 진리 곧 영생 길을 모르거나, 들었어도 거부하는 자들. May Yahweh our merciful Father bestow His Spirit of Understanding to open the eyes of blinds to see the Wonders of the Torah of YHWH and His Messiah are One and the Same, the Living Torah (살아계신 여호와와의 말씀)!